

## “기회불평등 2016” 연구발표회 토론 및 Q&A 요약

\* 아래 내용은 2016년 6월 15일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연구발표회의 토론과 Q&A 세션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속연구의 방향과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연구진 리스트

신광영교수 (중앙대사회학과, kyshin@cau.ac.kr)  
이성균교수 (울산대사회과학부, skleeuou@ulsan.ac.kr)  
양재진교수 (연세대행정학과, jyyang@yonsei.ac.kr)  
김영미교수 (연세대사회학과, youngmikim@yonsei.ac.kr)

### 패널 리스트

이우진교수 (고려대경제학과, woojinlee@korea.ac.kr)  
박경숙교수 (서울대사회학과, pks0505@snu.ac.kr)  
계봉오교수 (국민대사회학과, bkye@kookmin.ac.kr)  
변수용교수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육학과, szb14@psu.edu)

## 1. 토론

### 이우진교수

✓ 기회불평등 논의에서 어디까지 노력으로 인한 것이고 어디까지 환경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정치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

기회 불평등에 대한 현대적인 논의는 개인적인 성취의 얼마만큼 까지를 환경적 요인으로 간주 할 것이며 얼마만큼을 노력에 의한 요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거죠

니가 좌고 내가 우라고 할 때 결과냐 기회냐 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신이 생각할 때 얼마만큼의 환경적 요인이 당신의 성취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노력이 얼마만큼 미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거죠.

✓ 불평등 문제 논의의 통합적 줄기가 기회 불평등이라고 생각.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함. 가장 큰 이유가 오랜 시간 누적된 실증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임. 금번에 실시한 기회 불평등 의식조사도 의미가 큼

\* 본 문서에 있는 내용이나 문구를 인용하실 때 동그라미재단과 발표자 혹은 패널의 성함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는 통합적인 theme은 바로 기회의 평등 불평등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외국에서는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의 재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저런 실증적인 데이터가 좀 오래된 기간에 걸친 자료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수행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많지만, 금번에 실시한 주관적인 의식 조사에 의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 ✓ 환경적 요인이 좋은 사람이 노력도 많이 기울임. 노력에 대한 대가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하게 됨. 따라서 기대치가 다른 경우 모든 것을 노력으로 볼 수 없음
- ✓ 우리사회에서 인맥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많음. 환경적 요인 중 인맥은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과 노력의 복합체임. 인맥은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가 쌓는 부분도 있음.

일반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좋은 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환경적 요인이 좋을 때 내가 1시간만 더 투자해도 다른 환경적 요인이 나쁜 학생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1시간을 더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노력으로 볼 수는 없지요.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흔히 제기되는 인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맥은 환경과 노력의 복합체입니다. 부모가 다 인맥을 형성해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쌓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맥이 갖는 것에 대한 불만들은 많죠.

- ✓ 단 한번의 평가로 인생이 결정되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교육의 기회를 사적으로 귀속할 가능성 높음.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교육 기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의 끊임없는 재평가 시스템이 필요. 한번의 특례 입학 허용하는 것만으로 기회 불평등 해소가 이루어지기 힘들

우리나라 평가 제도는 단 한 번의 평가로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간 저소득층이 앞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육은 기회를 평등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교육으로부터의 return은 사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의 끊임없는 재평가 (constant re-evaluation)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대학 입학 때 한번 이런 특례 입학식을 허용해주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 이런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 ☞ **답변 (양재진교수):** 가족배경이 중요해 지는 것은 어느 사회건 마찬가지 이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 즉 유아교육부터 성인의 직무교육까지 공적 교육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함. 이러한 교육기회가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려면 교육, 훈련으로 높아진 나의 가치가 성과 및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연결이 안되고 있음. 한번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이후 노력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적기 때문. 따라서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상하이동의 기회가 열릴 수 있음

여러 영역의 불평등 문제는 그 원인과 해결방식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평등 연구와 논의가 영역별로 나뉘어지는 것 바람직함

소득불평등 이라던지 재산 불평등 이라던지 교육 불평등 이라던지 건강불평등 이라던지 주제별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라는 게 다양한 측면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불평등을 해결할 것이냐 할 때는 이런 종류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소득의 불평등에 있어서 환경이 미치는 효과하고 건강의 불평등에 있어서 환경이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분류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수용교수

- ✓ 어린 시절 문화활동 경험이 실제로 교육기회불평등을 야기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 있음.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육불평등이 증폭되거나 감소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

어린 시절 경험들, 특히나 문화 활동과 관련된 오페라나 미술관이나 이런 경험들이 정말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업성취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문화 경험 또는 학교 다녔을 때에 고급문화의 경험이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성적이 더 떨어진다는 그 결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기회의 불평등이 반드시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불평등이 증폭되거나 아니면 감소되는 매커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구요.

-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부분이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필요함. 미국의 학술논문에서 발견한 결과는 교육제도가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학생들이 기회의 공정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짐

상층에 있는 애들조차도 우리나라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PISA가 전세계 80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한 건데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한 부정적인 시각이 전세계의 상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등학생들이 사회가 불평등하고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Sociology of Education 이라는 학술논문에서 발견한 결과는 교육제도가 계층화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학생들이 자기의 성공요인을 개인의 노력에 기인하지 않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 ✓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승자독식, 계층화되어 있음. 이런 환경에서 공교육의 강화는 오히려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고착화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 사회가 2ND CHANCE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WINNER TAKES ALL, 승자독식, 패자독박을 겪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의 불평등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스스로 체화하여 받아들이고 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구요. 그런 맥락에서 공교육의 강화가 교육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의 대안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의 인식을 증폭시키고 더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심하게 계층화 되어 있는 현재 교육시스템 하에서 공교육의 강화는 오히려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고착화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 답변 (이성균교수): 인간의 욕구와 사회진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의 유형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현상. 그러나 현실은 다양화가 계층화되는 문제가 존재. 입시명문 학교 등과 같은 계층화, 서열화된 교육 환경 속에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큼. 배경에 관계없이 노력과 열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교육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고민해야 함. 그래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완전히 비관적 상황은 아님. 입시로 표현되는 교육기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기회를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것이 과제

## 박경숙교수

- ✓ 모든 생애에 기회 불평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생애 마지막 단계인 노년층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있음.
- ✓ 기회의 평등은 삶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불평등의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얽여 있기 때문에 기회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는 관점이 생애주기별 접근과 맞닿음. 또한 세대효과와 생애주기 관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도 심화되면 좋을 것

생애관점에서 모든 불평등의 이슈를 기회 불평등으로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생애 초기에는 삶의 조건 자체가 성취나 결과적 평등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하지만, 노년기에 있어서는 그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좌우의 이념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삶의 단계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불평등의 차원들이 굉장히 복잡적이고 이질적으로 얽여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회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는 관점이 좀 더 생애주기 관점하고 맞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 효과와 생애주기의 관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심화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경제적인 요소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 노년의 빈곤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삶의 질을 왜곡하는지 드러내는 현상

노년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에 이렇게 경제적인 차원의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는 대해서는 정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노년의 빈곤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삶의 질을 왜곡하는가를 드러내는 현상인 거 같아요.

- ✓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 실천적이고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사회 참여로부터의 배제가 결합되면 경제적 불통이 정치적 불통과 연결됨

한국의 모든 삶이 얼마나 물질에 의해서 예속되고, 물질에 의해서 삶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적인, 실천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평등 구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에 기반을 둔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대응을 찾아내는 것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빈곤과 불평등이 삶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 참여로부터의 배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이라는 것이 유년의 정서에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에 반영이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배제의 정서와 결합되면 정치적으로도 불통하는 관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계봉오교수

- ✓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 샘플자료수가 제한적. 각 세대별로 연차를 돌려가면서 서베이 실시한다면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임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다 보니깐 개별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수가 상대적으로 500에서 1000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샘플사이즈를 크게 해서 세대별로 연차를 돌아가면서 서베이 실시하면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회 불평등 인식과 경험에 차이가 크다는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보다 더욱 두드러지는 결과임.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인지 자료의 한계 때문인지 좀 더 논의가 필요

계층계급별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이전 연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예전에 비해 굉장히 많은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런 결과에 도달한 건지 거기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계층별 지역별 학교환경과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큰데, 객관적 교육환경과 여건은 더욱 큰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상층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아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불만이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층 청소년들이 학교교육환경에 더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교육여건이라든지 학교 환경을 비교한다면, 훨씬 더 계층 계급간의 혹은 지역간의 격차가 더 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베이에 학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면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실제 교육환경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회와 결과를 개념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무엇이 불평등한 기회구조이고 무엇이 그 결과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 구분이 어려운 현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답변 (김영미교수):** 기회와 결과의 구조를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임. 청년세대 연구의 큰 줄기는 첫째 가족에 대한 높은 의존도 둘째 심각한 성 불평등 셋째 노동시장의 이중화 경향. 이 세가지가 세대 내 불평등의 원천임. 이를 바탕으로 분석함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회의 격차와 인식의 격차가 현재 청년세대만의 특징인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화될 것인지 강화될 것인지 추가연구의 중요한 주제임**

나이가 먹어 가면 갈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른 격차라는 것은, 청년기 때에는 당연히 살아온 기간이 얼마 안되지 않아 부모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연령의 특징인 것인지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전 세대 하고 비슷하게 격차가 줄어들 건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가 질적인 변화를 경험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차이들이 나이가 먹어 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점점 강화될 것인지, 향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답변 (김영미교수):** 현재 청년세대가 처음으로 계층화된 사회를 경험한 세대임. 이 가족배경의 효과가 연령효과인지 코호트 효과(세대 효과)인지 분리해 내기가 힘들.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앞으로 세습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됨. 단초를 보자면 청년 세대보다 청소년 세대에서 가족배경의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음

✓ **장년층의 경우 부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자식세대에 대한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분석결과로 제시되는 세습 경향성에 대한 수치 자체가 조금 과할 수 있음**

장년층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지위에 미친 영향을 주관적으로 과소평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세습이 강화되는 경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시된 수치 자체를 조금 그걸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 **답변 (신광영교수):** 중장년 세대에서 한국사회가 더 이상 사회이동이 쉽지 않은, 고착

화된 중세 신분사회와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행동양식에 영향을 줌. 주관적인 인식이 객관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런 **생각과 인식에 기초하여 행동과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 신분상승이동을 위해 노년에 대비하지 않고 자녀교육에 과잉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 모습

✓ **웹서베이에 참여할 수 있는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층이 많을 것임**

노년층의 경우 직접 면담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웹서베이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고학력 층에 있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 있습니다.

☞ **답변 (양재진교수):** 웹서베이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에 거주하고 학력이 어느 정도 높은 분들이 응답함.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1/4정도는 대면조사 실시. 이를 감안하여 분석결과를 볼 필요 있음

## 2. Q&A

Q.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고, 기술혁신으로 인해 대폭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A (신광영교수) 오늘 인구변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현재 상태로 가면 우리는 미래가 없음. 기회 불평등 논의 자체가 불필요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OECD에서 발간한 2050년 예측 보고서나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음. 현재 이러한 현상은 시작단계이고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시스템이 되는 상황.

A (변수용교수) 한국에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기술혁신을 통해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반대의 상황이 심화될 것임

A. (김영미교수) 더 빠르게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개방성을 높여야 함.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도 방법 중 하나임

A (이성균교수) 우린 왜 알파고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흥미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연구할 수 있겠는가? 반복적 지식축적에 기반한 한국교육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희망이 없음. 등수 점수가 아니라 그 이상을 생각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실패자들이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 청소년교육 공교육이 아니지만 자기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의 기회 제공 중요

A. (이우진교수) 어떤 식으로 산업구조가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기회 평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함. 파괴되는 일자리는 배출되는 자원(사람)을 재훈련시키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더 창조적이면서도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함

Q.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쌓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A. (신광영교수) 금번 서베이 데이터는 자산의 불평등, 교육,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앞으로 더욱 분석되어야 할 내용임

A (박정숙교수) 한국사회가 유독 고령화와 불평등 구조에 많이 영향 받는 이유는 첫째가 한국사회가 짧은 시간 고도성장을 이룬 국가로 다른 많은 국가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성장모델이 이제 재생산될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 둘째가 공공성 보편적 복지 또한 노년의 공적 연금에 대한 논의가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공공성이 확대되는 것을 제약하는 두 구조가 가족중심, 가부장제임. 이제 정계에 있는 정책결정자 지식인이 아니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생각이 들

A (이우진교수) 가족문제에 대해 다른 분들과 생각이 조금 다름. 모든 평등에는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경쟁 대신 연대임. 경제학자들은 보통 경쟁을 강조하지만 경쟁만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민들 간의 신뢰, 연대, 사회적 자본임. 현재 문제는 가부장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간의 연대가 깨진 문제가 아닌가. 올바른 가족관계를 복원하고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경제 정책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

[끝]